광주 도로 확~ 뚫린다

2019년까지 첨단진입로 등 간선도로 10곳 개통

지·정체 구간 확장·산단 연결 … 전남도 가까워져

임방울대로와 북부순환도로를 비롯한 광주의 간선도로들이 속속 완공되거나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어서 광주의 교통 흐름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새 도로들은 그 동안 기반시설이 빈약했던 곳이나 화물 등 산업물류가 집중되는 산업단지, 광주와 인접한 전남 시·군 연계지역 등에 개설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10년 간 광주에 들어설 기간도로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첨단산업단지(2단계) 진입도로 등 모두 10곳이다. 〈그림 참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모두 2조1천717억원에 달한다.

▲도로 확장, 정체 뚫린다=교통량에 비해 차선이 좁아 지·정체 및 사고가 빈발한 도로를 대상으로 확장공사가 이뤄진다. 오는 2015년 완공되는 일곡~용전 간 도로는 광주 북부의 교통요충지이고, 2013년 완공되는 광주~화순 간 도로는 통행량에 비해 차선이 좁아 602억원을 들여 각각 2차로에서 6차로,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된다. 또 송정~나주 간 5.7㎞ 구간도 오는 2014년까지 4차로에서 6차로로 넓어진다.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진입 쉬워진다=광주의 동북부에 해당되는 하남산업단지와 진곡산업단지의 왼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외곽도로가 각각 2015년과 2013년 완공된다. 총 연장은 각각 5.5㎞, 6.0㎞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산업단지 간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 질 전망이다. 제3순환도로나 호남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면서 수송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2015년 완공되는 북부순환도로는 일곡지구 등 북구의 주택단지와 망월동을 이어주며, 올해 말 완공되는 첨단산업단지(2단계) 진입도로는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광산나들목으로 진입했던 차량을 분산시켜, 북광주나들목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광주 나들목과 빛고을로가 연결되면 광주 남북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된다.

▲광주와 전남 가까워진다=제3순환도로는 광주와 인접한 화순, 장성, 담양, 나주 등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완공되면 광주와 인접 시·군과의 거리는 크게 좁혀지게 된다.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제3순환도로 제2구간은 장성과 광산구를 잇는 외곽 간선도로로 이미 완공된 3구간과 연결된다. 화순과 나주 등을 잇는 4구간과 5구간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광주제3순환도로가 완성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9년까지 완공 예정인 광주 간선도로 현황

연번	사 업 명	연장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①	북부순환도로 개설 (북구 용두동~북구 장등동)	7.5㎞	2,080	2007~2015
②	일곡~용전 간 도로 확장 (북광주 나들목~북구 용전동)	1.6㎞	634	2007~2015
③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광산구 운수동~광산구 진곡동)	5.5㎞	1,619	2007~2015
④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광산구 진곡동~광주과학기술원)	6.0㎞	1,607	2005~2013
⑤	첨단산단(2단계) 진입도로 개설 (북광주 나들목~동림 나들목)	3.7㎞	1,042	2003~2009
⑥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개설 (광산구 본덕동~광산구 오산동)	18.5㎞	2,725	2003~2011
⑦	광주~화순 간 도로확장 (동구 소태동~동구 용산동)	2.4㎞	602	2008~2013
⑧	송정~나주 경계 간 도로 확장 (송정1교~나주시 경계)	5.7㎞	703	2010~2014
⑨	광주순환고속도로(제3순환선) 2구간 건설 (광산구 본량동~담양군 진월면)	19.5㎞	4,865	2008~2019
⑩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매월 나들목~나주시 경계)	23.1㎞	5,840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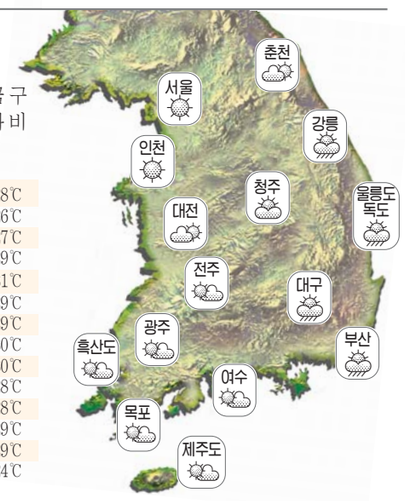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0분 해짐 18시 50분 달뜸 20시 21분 달짐 09시 28분

축제없는 가을 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곳도 있겠다.

광 주	맑은뒤 흐림	20/28℃
목 포	맑은뒤 흐림	20/26℃
여 수	맑은뒤 흐림	22/27℃
완 도	흐리고 한때비	19/29℃
구 례	맑은뒤 흐림	18/31℃
해 남	맑은뒤 흐림	19/29℃
장 흥	맑은뒤 흐림	19/29℃
고 흥	맑은뒤 흐림	18/30℃
순 천	맑은뒤 흐림	20/30℃
영 광	맑은뒤 흐림	18/28℃
진 도	맑은뒤 흐림	20/28℃
전 주	맑은뒤 흐림	19/29℃
남 원	맑은뒤 흐림	17/29℃
흑산도	맑은뒤 흐림	20/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자외선지수 보통 / 식중독지수 경고 / 불쾌지수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1.5m
먼바다	북서~북	1.5~2.5m

	밀물	썰물
목포	04:10 16:39	09:17 21:38
여수	11:02 23:02	04:37 16:5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 씨						
최저/최고	19/27	18/28	17/26	17/26	18/27	19/27

한국 보행자 사망률 OECD 1위

10만명 당 4.6명 … 보행우선도로제 도입 시급

한국의 인구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으로 여는 녹색미래』에 인용된 200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6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였다. 이는 영국(1.15명)의 4배에 해당하며 일본(1.9명)의 갑절이 넘는다. 다른 회원국들을 보면 헝가리 2.86명, 그리스 2.11명, 포르투갈 2.02명, 스페인 1.56명, 오스트리아 1.18명 등이었다.

한국의 자동차 1만대당 보행자 사망자는 1.36명으로, 일본(0.29명)과 영국(0.2명)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중 75.2%는 주택가 등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 한상진 교통연구원 녹색성장연구센터장은 "주택가 도로에서 통행우선권이 사람보다 차에 주어져 보행환경이 열악하다"며 속도 저감시설 및 각종 보행자 편의 장치가 마련된 '보행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운영할 것을 사고 예방책으로 제안했다. /연합뉴스

15년 넘은 영구 임대아파트 12곳 새 단장

광주시, 통합 경비실·CCTV 설치

건축한 지 15년이 넘은 낡은 영구·공공 임대아파트들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뤄진다. 특히 이 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을 대규모 공공자금을 통해 개선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두 12개 단지 1만4천93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전역의 12개 영구·공공 임대아파트를 '새 단장'하기 위해 국비 217억원, 시비 39억원 등 모두 287억원의 예산을 마련, 이달 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된 사업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을 위한 복도 창호 설치, 강력범죄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지 내 무인카메라(74대) 설치, 외관 디자인 개선 등이다. 또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통합경비실과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공사 등은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축주택과 안용훈 계장은 "광주의 노후 영구·공공임대아파트 전부를 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확보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이염환자 5명 중 1명 10살 이하

제때 치료 못한 40~60대가 절반

전남대병원 5년간 조사

중이염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10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지정 '귀의 날'(9월9일)을 앞두고 2004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여 동안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통해 중이염 진단을 받은 1만1천778명을 연령·질환별로 분류한 결과, 10살 이하가 2천534명(2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천121명(18%), 40대 2천33명(17.3%), 60대 1천566명(13.3%), 30대 1천181명(10%), 10대 853명 (7.2%), 20대 817명(6.9%) 등이었다.

전체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가 40~60대인 이유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난 1960~1970년대 생긴 중이염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중 고막 안에 물이 차 있는 삼출성 중이염 환자가 1천852명(15.7%)을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1천15명(54.8%)이 10살 이하였다.

성별로는 여자(6천257명, 53.1%)가 남자(5천521명, 46.9%)보다 많았다.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는 "영유아의 중이염을 막으려면 간접흡연이나, 불결하고 밀집된 주거환경 등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성 중이염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이 나빠지거나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청력이 떨어지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종플루 우려 '충장축제' 취소

광주시 동구는 신종플루 감염 우려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제 6회 충장축제'를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동구는 이날 충장축제 기획위원회를 소집,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축제 취소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축제 '취소'와 '강행'을 놓고 의견이 갈렸으나 축제 참가자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전국 지자체 축제가 취소되는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태명 청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이라는 생각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례온천 CC 조성 적법"

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하)는 7일 구례군 산동면 주민 92명이 구례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례온천 컨트리클럽(CC)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참을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며 "현장 검증 결과 상수원 고갈·오염, 홍수, 토사유출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고 판시했다.

A업체는 지난 2008년 2월 구례온천 CC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생활·농업 용수 고갈과 홍수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